



새로운 조경수 77

남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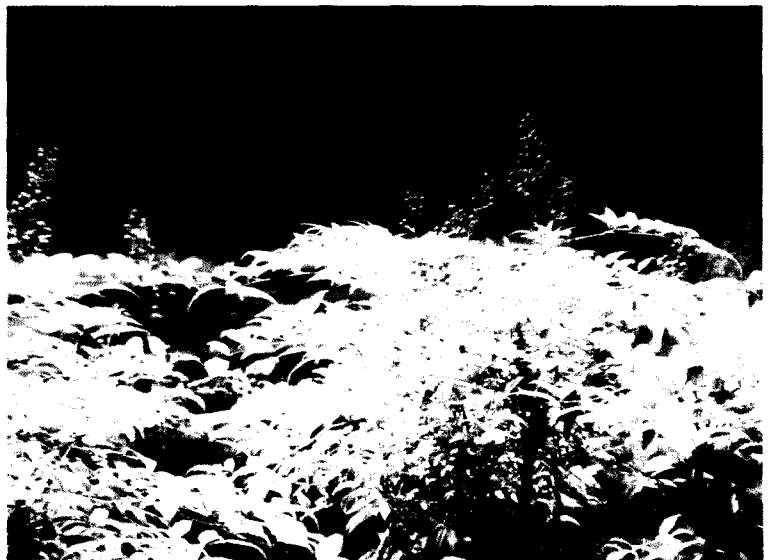


김 사 일

전 임업연구원 산림환경부장

1. 종류와 생육특성

남천은 매자나무과(Berberidaceae)의 남천속(Nandina)에 속하며 남천속에는 남천 단 한종밖에 없지만 관상용으로 재배되면서 많은 원예용 품종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. 분포지역은 일본, 중국, 인도 등 동남아시아의 나라들 중 난대 및 열대에 속하는 지역에 자생하고 있으며, 우리나라에는 관상용으로 도입되어 재배되고 있는 도입수종이다. 내공해력, 내음력, 내화력(耐火力) 등은 강하지만 내한력(耐寒力)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는 야외식재가 불가능



▲ 남천의 꽃과 화서

<표 1> 남천의 종류

국 명	학 명	일 본 명	영 명
남천	<i>Nandina domestica</i> THUB.	ナンテン	Nandina
백남천	<i>Nandina domestica</i> var. <i>leucocarpa</i> YANAGITA.	シロナンテン	
자남천	<i>Nandina domestica</i> var. <i>porphyrocarpa</i> MAKINO.	フヂナンテン	
금사남천	<i>Nandina domestica</i> var. <i>capillaris</i> MAKINO.	キンシナンテン	

<표 2> 수종별 특성

수종명	가지와 잎	꽃과 열매	분포 지역	생육 입지
남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상록활엽관목으로 수고 3m정도 자람 지표면에서 맹아가 많이 올라와 포기를 형성함 잎은 3회3출우상복엽(3回3出羽狀複葉)임. 잎의 길이 30~50cm, 넓이 30cm 정도임 잎은 호생하고 잎자루가 있음 소엽은 잎자루가 없고 타원상피침형(橢圓狀披針形)임 소엽의 길이는 3~7cm, 넓이는 1~2.5cm 정도임 소엽의 양면에 털이 없고, 잎가장자리에 톱니가 없음 어린가지와 잎에 선홍색의 빛이 돌 가을에 단풍이 붉게 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꽃은 6~7월에 백색으로 핀 꽃은 양성화(兩性化)로 꽃잎이 6개로 갈라짐 꽃의 지름은 6mm 정도임 화서는 대형원추화서(大形圓錐花序)로 가지끝에 곧곧하게 달림 화서의 길이는 20~40cm임 열매는 가을에 붉게 익으며, 구형(球形)으로 지름이 7~10mm임 한개의 열매에 유백색(乳白色)종자가 2개 들어있음 종자의 모양은 요편반구형(凹扁半球形)으로 지름이 4~7mm임 1당 kg당 종자입수는 12,000개 및 22,000개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본, 중국, 인도 등 동남아시아의 난대 및 열대지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배수가 잘되는 비옥한 사질양토 우리나라 남부지방 중난대 및 온대 남부지역에서만 생육이 가능
백남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어린가지와 잎이 황록색이고 단풍이 붉게 돌지 않는 것이 남천과 다른점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열매가 가을에 대황백(帶黃白)색으로 익는 것이 남천과 다른점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본, 중국, 인도 등 동남아시아의 난대 및 열대지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배수가 잘되는 비옥한 사질양토 우리나라 남부지방 중난대 및 온대 남부지역에서만 생육이 가능
자남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줄기, 가지, 잎 등의 특징은 남천과 같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열매가 가을에 담자색으로 익는 것이 남천과 다른점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본, 중국, 인도 등 동남아시아의 난대 및 열대지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배수가 잘되는 비옥한 사질양토 우리나라 남부지방 중난대 및 온대 남부지역에서만 생육이 가능
금사남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키가 작고 마디가 조밀(稠密)함 잎이 아주 가늘고 밀생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열매가 붉게 익는것도 있고, 담황백색으로 익는것도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화분식재용으로 개발된 품종임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화분에 식재



▲ 남천의 열매

하고 우리나라 남부지방 중 난대 및 온대남부에 속하는 지역에서만 야외식재가 가능하다.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·식재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남천이고 간혹 백남천(白南天), 자남천(紫南天)도 재배·식재되고 있으며, 분식(盆植)용으로 금사남천(錦糸南天)도 재배되고 있다. 생육적지는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사질양토에서 잘 자란다.

2. 조경수로서의 활용 가치

남천이 우리나라에 도입된지가 오래되었지만 내한력이 약해서 남부 일부지역에서만 조경수로 식재되어 왔고, 기타지역에서는 그린하우스내에서 분식(盆植) 및 절화(切

花)용으로 재배되고 있다. 남천은 상록수로 짙은 녹색의 윤기(潤氣)가 흐르는 두터운 잎과 6~7월에 줄기와 가지 끝에 모여피는 흰 꽃송이는 항상 생기가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, 가을에 줄기와 가지 끝에 알알이 익어가는 붉은 열매와 주홍색(朱紅色) 단풍은 일품으로 조경수로서의 가치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. 지표면에서부터 많

은 맹아가 올라와 포기를 형성하기 때문에 창문 가까이 정원에 군식을 해도 좋고, 건물 외벽 가까이 줄로 심어 수벽을 만들어도 좋으며, 경계선 및 진입로변에 줄로 심어 생활타리를 조성하여도 좋다.



▲ 백남천의 열매

3. 번식 및 양묘방법

남천은 파종, 삽목, 분주, 접목 등의 방법으로 번식하며, 파종에 의한 실생묘 양성은 12월에 익은 열매를 채취하여 1~2일간 물에 담그어 두었다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벗겨 물로 씻어 낸 후 종자만 건져 바로 젖은 모래와 혼합하여 저온 저장 또는 노천매장을 하여 두었다 다음해 4월 초순에 m^2 당 100cc 또는 50g(1,200개 또는 1,100개)을 파종하면 평균 발아율 60%(40~90%)정도로 m^2 당 발아본수는 700본 정도이며, 득묘본수는 300본 정도다. 파종 후 발아가 6월부터 시작하여 10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발아하기 때문에 파종 후 복토를 약간 두텁게 하고 짙은 얇게 덮어서 복토의 유실과 건조를 방지하여야 한다. 그리고 묘목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1~2년간 거치하여 두는 것이 좋다. 또한 가을에 직파(直播)를 하여도 되고, 묘목상체(苗木床替)시에는 m^2 당 30~40본 정도로 한다. 삽목묘 양성에 있어서 삽목시기는 4월, 6~7월, 9~10월 등 연중삽목이 가능하고, 주로 그린하우스(Green House)내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노지삽목을 하여도 관리만 잘하면 활착율이 높다. 삽수는 1~3년생 가지를 채취하여 삽수길이 15cm 정도로 절단하고 삽수의 1/2이하의 밑부분의 복엽을 제거한 후 삽목을 하여야 하며, m^2 당 삽목본수는 100~150본 정도로 한다. 특히 노지삽목



▲ 남천의 단풍

시에는 해가림을 두텁게 하고 상면이 마르지 않게 관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 분주는 지표면에서 발생한 맹아가 20cm정도 자랐을 때 굴취하여 이식하면 되고, 접목은 4월 중순에 실생묘를 대목(台木)으로 절접을 한다. 접목은 품종 보존 및 분식용으로 증식하기 위하여 실시한다. 